

2021. June

통권

제132호

발행인 김현철 | 발행일 2021년 6월 10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김정숙 연구위원

### 요약<sup>1)</sup>

-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미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대륙별·국가별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0년도에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는데, 설문조사는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동포청소년 총 9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질적조사는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9~18세의 재외동포청소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과거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20대 청년 집단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8개 영역의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년 고유과제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미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대륙별·국가별로 연구를 수행해 왔음.
- ▶ 2015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첫해에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2차년도부터는 대륙별·국가별로 연구를 실시하였음. 2016년에는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 2017년에는 CIS 지역 동포청소년과 남미국가 동포청소년, 2018년에는 프랑스와 독일 동포청소년, 2019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그리고 2020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동포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 동남아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들이 위치한 곳으로,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특히, 동포청소년의 규모와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6개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국가를 선정하였음.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친화적인 성장 환경을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동포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음. 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음.

## 2. 연구방법

-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특성과 성장 환경,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한인공동체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6~7월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동포청소년 각 국가별로 150명씩, 총 9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 질적조사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9~18세의 재외동포청소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그리고 과거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청소년기를 경험한 20대 청년 집단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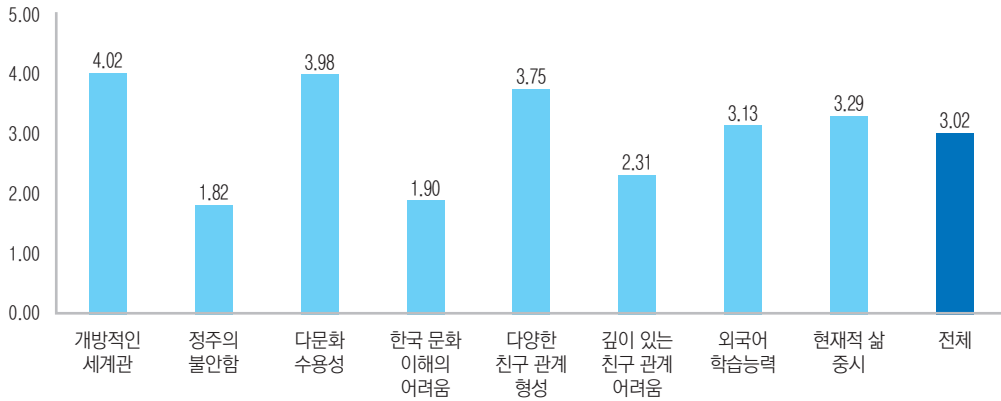
[그림 1] 질적조사 방법

- ▶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정책과제는 재외동포전문가 및 동남아 관련학과 교수집단, 전 동남아 한국국제학교 교장 집단, 재외공관 및 현지 한글학교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과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아울러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책 협의,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음.

###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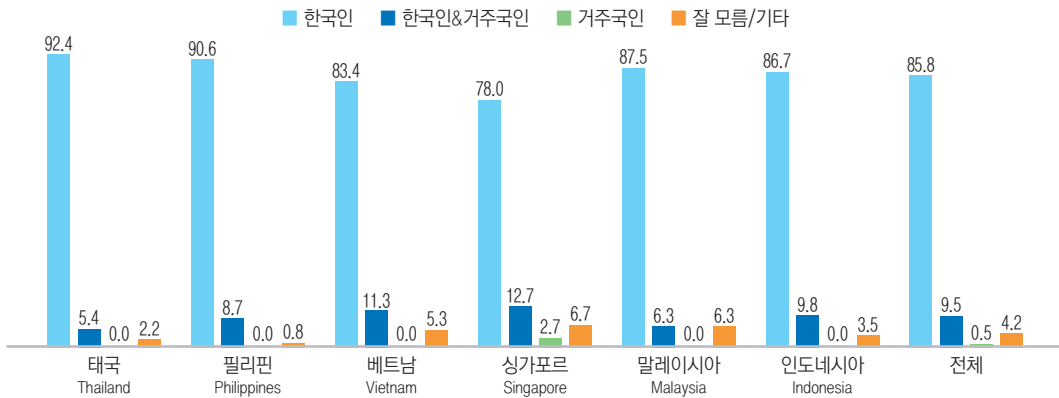
#### ▶ 설문조사 결과

- **동남아 동포청소년 특성** :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에게서 개방적인 세계관(평균 4.02점)이라든가 다문화 수용성(평균 3.98점), 그리고 다양한 친구관계 형성의 능력(평균 3.75점)은 확연히 보였으며, 현재적인 삶을 중시하는 태도(평균 3.29점)라든가 외국어 학습 능력(평균 3.13점)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깊이 있는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평균 2.31점)이나 한국 문화 이해의 어려움(평균 1.90점), 그리고 정주의 불안함(평균 1.82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거주국에서 오래 살수록, 그리고 한국국제학교 학생보다는 현지 또는 국제학교 학생들일수록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동남아 국가 내 공관이나 한국교육원 등에서 거주국 시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정작 이들 동포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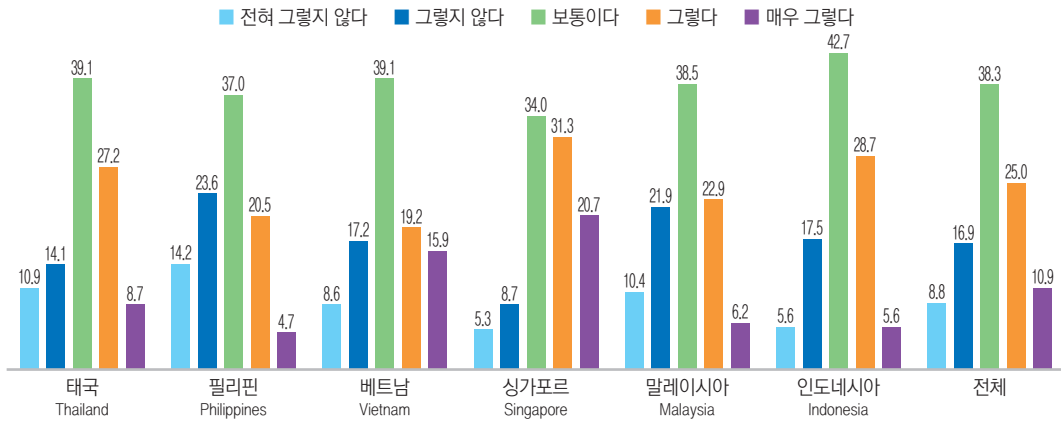
[그림 2] 교차문화 청소년의 특성

- **국가 정체성** : 동포청소년들의 국가 정체성 혼란은 대부분의 대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만이 이중 정체성 또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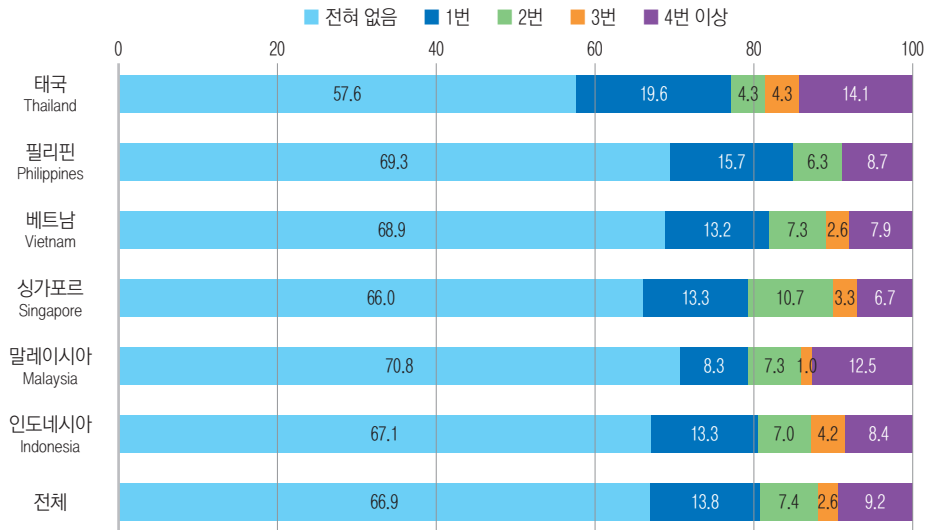
[그림 3] 국가 정체성

- **거주국 언어나 거주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 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 언어나 거주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거주국에서의 적응과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미래에 대학 진학이나 직업 등 동포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조사 결과, 거주국 언어에 대해서 약 10명 중 3명 이상이 관심이 있었고, 거주국 언어 학습에 대해서 약 10명 중 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거주국 언어 구사 수준은 '잘 한다'는 응답이 약 10명 중 2.5명으로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이나 학습 욕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또한 거주국 문화에 대한 수용 의사는 과반수 정도(53.9%)로 나타났으나, 약 10명 중 4명 정도만이 거주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 :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동의하고(평균 4.34점), 한국과 관련한 일을 하고(평균 3.64점),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평균 3.62점)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았으나, 거주국 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평균 2.70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과반수이상(57.2%)이 동의하고 있었으나 거주국에서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23.2%만이 동의하였음.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약 10명 중 7명 정도가 한국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으며, 약 2명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약 1명은 해외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의 개설** : 동남아시아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수업의 개설은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한글학교에 다니는 응답자(현지 학교 또는 국제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6개국의 한국어수업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20% 정도가 한국어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77.3%, 필리핀 35.7%, 베트남 34.2%, 태국 31.2%, 말레이시아 5.2%, 인도네시아 5.2% 등으로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에 대한 인식과 교류프로그램 참여 욕구와 경험** :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한국 방문, 한국에서의 학업, 한국에서의 취업,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요구에 비해서 한국 방문 기회,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청소년캠프 및 프로그램 참여는 약 10명 중 3명만이 경험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참여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한국에서 개최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한 경험은 학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35.1%인데 비해, 국제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29.9%, 현지학교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20.8%로 나타남.



[그림 5] 한국 개최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경험

- **동포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지원 욕구** : 현재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공공/교육시설의 부족,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 :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성별, 학교급, 학교유형, 거주이유, 나의 정체성, 한인 친구 교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한국어에 대한 관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2(약점) 변인들의 영향력이 확인됨. 특히, 국제학교 및 현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차문화청소년 특성 2(약점)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차문화청소년의 약점 요인을 줄이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영향 요인** :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 영향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성별, 나의 정체성, 한국문화 교류 경험,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1(강점),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2(약점), 거주국언어 관심 및 학습욕구, 거주국문화 이해 및 수용, 한민족정체성 변인 등이 영향을 주었음. 특히, 한국 관련 참여 욕구, 교차문화청소년의 특성 등은 한민족정체성 뿐만 아니라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음. 또한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현지/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국 언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한국 관련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 질적조사 결과

### (1) 청소년 면담 분석 결과

- **동포청소년의 특성** : 한국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넓은 세계관과 유연한 사고, 유창한 언어능력을 갖게 되는 등 긍정적 특성을 보여준 반면 고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나태한 학습태도를 보이거나 적응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정체성** : 현재 동남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 역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한국인으로 인식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일시 귀국하거나 한국인을 만났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음.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형성하지는 못했으나, 스스로 제3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 **동포청소년의 가정, 학교, 주거지 등 생활환경** : 동포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 중 가정은 한국어 사용을 독려하고 한글학교에 보내는 등 한국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음. 이들의 친구관계는 한국국제학교/한글학교 vs. 국제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한국국제학교와 국제학교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국제학교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어 국제학교로서의 특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어, 현지어, 영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국제학교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립 국가의 문화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학교생활 초기에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모의 직장과 후원기관은 동포청소년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동남아 동포청소년의 진로 환경** :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은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학교에서의 교육 경험 등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현실적으로 거주국에서 진로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원 등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 **한국 및 거주국에 대한 인식과 교류 기회** :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에게는 한국문화와 한인청소년들 간 교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동포청소년들에게 거주국에서의 삶은 한국과 거주국 사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류의 확산으로 거주국인들이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중 일부는 거주국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한국의 경쟁적 입시문화나 사회문제로 인해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함. 한편 동포청소년들은 이주 초기 거주국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 부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거주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거주국 현지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지어를 배우는 데 소극적인 경우도 많음. 또한 동남아 국가와 동남아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일반 한국인들의 이해와 정보 부족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청소년들의 미래 진로개발과 문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한국역사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세계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거주국에서의 적응 및 거주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 지원, 한글학교 지원, 한국대학 진학 시 적응 지원을 희망하였음.

(2) 20대 청년 대상 생애사 연구 분석 결과

- **이주 목적 및 적응** : 생애사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부모의 직업 또는 유학 목적으로 동남아 6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주 후 동거인이 누구인가(가족 전체 또는 형제자매, 친척, 현지 가디언)에 따라 초기 적응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었음. 이주 후 이들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자 사건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었음.
- **교류 대상 및 거주국 문화 이해** : 청년들이 거주국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교류한 사람들은 한인이었음. 일부 국가에서는 한인들만의 제한된 교류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남아에서 현지인들 또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 교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함. 그리고 이들의 현지어 구사 수준이나 거주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거주국 사회와 현지인에 대한 부모의 관점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동남아 체류 경험의 장점과 어려움** : 청년들에게 동남아 체류 경험은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고, 스스로 계획하고 생활하는 능력,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음. 반면, 이들은 오랜 시간 거주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위계적, 서열적 조직문화와 인간관계에 낯설어 하고 정서적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이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한국인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거주국 문화에도 영향을 받은 제3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 20대 청년들은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거주지 지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교육, 거주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동남아 체류 유경험자들을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3) 성인전문가 면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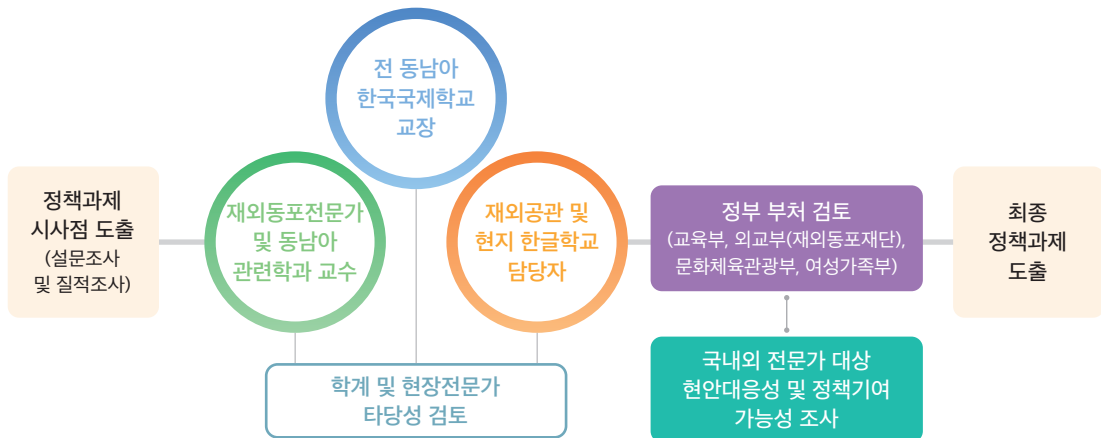
- **거주국의 특성과 거주 여건**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부모 직업 외에 유학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음. 고교 졸업 후 동포청소년들은 주로 한국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만 영미권 대학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권 대학 진학자도 일부 있었음. 이들이 한국대학이나 영미권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은 현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현지에서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거나 거주국에서의 거주 여건의 열악함에 기인함.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이들 동포청소년들을 향후 거주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학 졸업 후 현지 또는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임.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생활환경**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들의 생태체계 중 가정, 학교, 또래관계는 이들의 한국과 거주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심리-정서적 상태, 교차문화 청소년(또는 제3문화 청소년)으로서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가정과 학교 간 교류, 학교와 한인사회 또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부분적으로 활발한 반면, 가정과 한인 커뮤니티 또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거주국 내 한인회의 활성화 정도, 부모의 한인사회 및 현지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 : 동남아 거주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성인전문가들은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한국 모국 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현지 한국관련 기관들의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자문화 중심주의 극복 및 현지인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한글학교 지원, 한국국제학교 교육과정 개선, 한국국제학교의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한국 대학진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신남방정책에 동남아 동포청소년 출신 인재 활용 방안 마련, 다문화가정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4. 정책제언

▶ 설문 및 질적조사 분석결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안) 도출, 학계 및 현장전문가 타당성 검토, 관련 정부 부처 검토, 현안대응성 및 정책기여 가능성 조사 등 크게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목표, 정책방향,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그림 6] 정책과제 발굴 과정

▶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 동남아시아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정책 목표	동남아 동포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국과 거주국, 그리고 제3국에서도 한인의 후예로서 자신은 물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외국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재외한국학교 재학생 이외에 국제학교 재학생과 현지학교 재학생을 포괄한다.</li> <li>2. 성장 환경 조성과 한국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과 체험활동을 포함한다.</li> <li>3. 재외동포청소년의 가정과 학교, 한글학교, 그리고 거주국 동포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및 세계 동포사회까지를 포괄한다.</li> <li>4. 교육부와 외교부(재외동포재단)를 중심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li> </ol>

▶ 정책과제

- 본 연구에서는 8개 영역별로 3~6개,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정책과제 영역 1 : 동포청소년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 ①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정체성 이해 교육
- ② 거주국 내 한국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한국문화 지원 확대
- ③ 지자체 및 NGO 단체별 한국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확대

- 정책과제 영역 2 : 거주국 문화 이해 지원

- ① 거주국사회에서의 문화 적응을 위한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운영
- ② 거주국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③ 아세안-한인동포청소년 상호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정책과제 영역 3 : 한글학교 운영 환경 개선 및 사업 확대

- ① 한글학교 교재 수급 및 커리큘럼 개선
- ② 한국문화체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지원 확대
- ③ 한글학교 교사의 모국연수 기회 확대
- ④ 한글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사업(캠프) 발굴·운영 지원

## - 정책과제 영역 4 : 한국국제학교의 진로 지원 및 역할 강화

- ① 온·오프라인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학습장 구축 등 진로체험기회 확대
- ②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 등의 지원
- ③ 동포청소년 활동 거점기관으로서의 한국국제학교의 역할 강화
- ④ 거주국 내 국제학교 위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 - 정책과제 영역 5 :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 ① 현지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한국어수업 확대
- ② 가정 학습용 한글교육 보조교재 정보 제공
- ③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 - 정책과제 영역 6 :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 ① 동남아 동포기관 주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지원
- ②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계 청소년캠프 개최
- ③ 청소년단체를 활용한 세계 및 동남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정책과제 영역 7 :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 ① 방학 중 한국 방문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 ② 동포청소년 대상 현지 진로체험 및 인턴쉽 프로그램 제공
- ③ 한국대학 입학생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주거시설
- ④ 한국대학 진학예정자를 위한 거주국 내 예비학교 운영
- ⑤ 동남아 동포청소년을 위한 동남아지역 진로정보 제공
- ⑥ 동남아 인재 활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

## - 정책과제 영역 8 : 동남아 거주국 및 모국의 제도·문화 개선

- ① 동남아국가 및 동남아 거주 동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② 한국 및 동남아국가 간 상호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한 교류기회 제공
- ③ 동남아지역 동포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 ④ 동남아 한인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